

# 基督教高等教育的 特性化研究

薛 三 龍\*

1. 目的에 關한 考察
2. 大學의 變遷과 Identity
3. 基督者教授와 教育內容
4. 基督教大學의 特性化
5. 構造的宣敎와 福音化
6. 特性化 model 研究
7. 結 論

Bibliography

## 1. 目的에 關한 考察

1636년에 設立된 美國 Harvard 大學의 設立趣旨는 다음과 같다.

“人生的 目標와 工夫하는 重要目的은 永生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있으므로 모든 知識과 배움의 基盤을 그리스도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모든 學生들에게 明白하게 周知시키어야 한다”고 했고 Yale 大學의 設立 目標도 “그리스도의 信仰을 傳하고 받들어야 한다는 崇高한 熱望”으로 불타고 있었고 Columbia 大學校 總長은 大學의 目標를 “젊은이에게 그리스도를 通하여 하나님을 알고 그를 眞心으로 사랑하고 奉仕하도록 가르치는데 있다”고 力說하였다.<sup>1)</sup>

美國內에서 南北戰爭 以前에 設立된 大學數는 182個에 達하는데 이중 164個大學이 教會의 影響을 받아 設立 되었다. 이러한 基督教 高等教育이 20세기에 와서는 marginal school 이 되어 버렸다고 McCoy 博士는 말하고 있으며<sup>2)</sup> 教會關係大學의 심각한 딜레마는 sectarian past 와 public present 에 빠져 있는 것이라고 잘라 말하고 있는데<sup>3)</sup> 심지어 Thorstein Veblen 은 教會關係大學을 輕蔑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自身들의 靈魂을 구제하고 現代文明에 아무런 影響도 미치지 못하고 살아남으려는데만 만족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敬虔한 사람들로만 이

\* 文理科大學(大田) 專任講師

1) Robert W. Cousar Jr. Christian Higher Education in Crisis, The Presbyterian Journal Sept. 29, 1971. p.7  
Dr. Cousar delivered the substance of this message as an address on Journal Day, He is professor of Bible at King College, Bristol, Tenn.

2) Charles S. McCoy. The Responsible Campus p.20. 1972

3) ibid. p. 1

루어진 教授陣과 잘 지낼 수 있을뿐”이라고 했다.<sup>4)</sup> 그러나 大部分의 美國人들은 이러한 大學들을 더 높이 評價하고 있는 것은 事實이다. 왜냐하면 歷史上 그들의 貢獻은 至大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Gordon Gray 博士 같은 이는 오히려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If I were presented with a choice between a system of private higher education and a system of public higher education, I would select the former.”<sup>5)</sup>

위의 말은 教會의 根本的인 教育的 責任을 強調하는 말인데 基督教 高等教育의 첫째 課業은 宣敎이며 이 宣敎는 예수를 救主로 承認하는 者들이 基督教의 信仰과 人格으로 가르쳐지고 成長할 때까지는 끝나지 않는 것이다. 大學生들은 이 世上 지혜를 배워야 한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그 以上이어야 한다.<sup>6)</sup> 젊은이들은 그들을 둘러싼 物質世上에 對한 知識을 通하여 知的으로 확장 되어야 하고 이것은 또한 그의 靈的인 價値에 對해서 그의 知識과 理解가 소모 되어야 하며 또 깊어져야 한다. 이 두 가지 機能 即 知識擴張과 靈的成長이 教會關係大學의 全 program 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Samuel R. Spencer 博士는 知識擴張을 強調하는 뜻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Training the minds of young men and women is the primary function of the Christian College... If the church college cannot offer training equivalent to that of the Secular college on the same academic level, it has no justification for existence as an educational institution.”<sup>7)</sup>

反面에 靈的成長을 強調하는 William Allen White 博士는

“萬一에 美國教會가 靈的으로 成長한 Christian Leader 를 養成하는데 失敗한다면 다른 leadership 에 依해 養成된 美國人들이 곧 教會의 門을 닫을 것이다”

라고 경고했다.<sup>8)</sup>

이들은 基督教 高等教育이 곧 教會의 自存(self-preservation)을 保障하는 것으로 보았다. 事實上 教會의 大部分의 聖職者<sup>9)</sup>를 大學이 提供하고 있는것은 事實이다.

1954년도 美國에서 牧師후보생 1049名을 對象으로 調査한 結果로는 教會關係大學 出身이

4) Paul Woodring: The Higher Learning in America p. 39 Quoting from Thorstein Veblen, The Higher Learning in America(New York: Viking, 1935) p. 17

5) John Knox press: Church and Campus p. 71 이 말은 North Carolina University 의 Gordon Gray 박사가 California University 에서의 The Charter Day Address 의 한 구절이다.

6) Manford George Gutzke: The Christian and the Campus p. 52.

7) John Knox press, op. cit., p. 79. Dr. Samuel R. Spencer 는 Davidson College 의 Dean of Students 이다.

8) ibid. p. 79.

9) 聖職者(parson)라는 單語는 “person”이라는 單語에서 由來했다. 그것은 그의 卓越한 教育과 leadership 이 根本的으로 person 이라는 單語와 同一視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聖職者養成과 高等教育機關과의 不可分의 關係를 엿볼 수 있다.

596名이며 税金으로 유지되는 大學出身은 불과 179名 뿐이었다.<sup>10)</sup> 그만큼 教會指導者는 教會關係大學에서 배출되고 있었다는 證據다. 그러나 20세기에 와서 税金으로 維持되는 大學들은 날로 增加하고 그 숫자가 늘어나며 個人負擔이 적은 國立大學으로 人才들이 대거 몰려가고 있으므로 教會關係大學은 그 存立에 큰 危機를 겪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教會指導者 養成에 큰 暗雲을 던져주고 있다.

國內에서는 아직까지도 神學大學 入學生들을 分類하면 基督教大學 出身이 숫자적으로 우세한 것만은 多幸한 일이지만 차츰 既存 基督教大學이 脫教會의 양상을 띄고 있으며 大學管理者는 教會指導者 養成에 아무런 政策도 배려하지 않고 있는 것은 숨길 수 없는 事實이다.

基督教大學의 教育目標은 하나같이 “基督教精神에 立脚하여”라고 간단하게 시작하고 나서는 그것이 무슨 精神인지 알 수 없을 程度로 抽象化시켜 놓고서 具體的으로 아무 일에도 着手하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教育目標에 對한 具體的 行動方案을 提示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그 이름을 盜用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 2. 大學의 變遷과 Identity

大學은 數世紀에 걸쳐 그 機能을 增加해 왔다. Bologna, Salerno 以來의 大學은 醫術, 法律과 같은 特定한 專門職業을 爲해서 學生을 教育한다는 大學의 機能이 있었고 Oxford, Cambridge는 大學의 機能을 紳士, 政治家, 管理者의 養成所에다 두었고 Göttingen, Berlin은 學問研究의 中心으로서의 機能을 發展시켰고 Charlottenburg, Zürich 및 베스츄세츠에서는 技術의 엑스퍼트나 專門家의 幹部養成學校로서의 大學의 機能이 出現하였다.

大學이 오늘날 直面하고 있는 問題는 이 4가지 相違한 機能을 어떻게 하면 同一施設 속에서 調和시킬 수 있는냐는 것이다.

機能이 變하게 되면 形態도 그것에 따라 適應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게 안되면 그 有機體와 制度는 死滅하고 만다.<sup>11)</sup> 反面에 大學形態의 變化는 그것이 大學으로서의 機能을 보다 훌륭하게 수행시킬 때만 正常化 될 수 있다.

오늘날의 大學은 multiversity로 변모해 버렸다. 科學技術 革命의 時代에 돌입하면서부터 大學의 機能은 多樣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大學이 이것 저것 닥치는대로 一般人의 要求에만 應答하는 地域社會의 Service Station으로 변모하여 教授는 가르치는 일보다 外部와의 접촉이 더 빈번하게 돼 버렸다.

Wilhelm von Humboldt(1769—1859)가 세운 Berlin 大學의 理念의 진수는 孤獨(Einsamkeit)과

10) John Knox press, op' cit., p.78

11) Sir Eric Ashby: Technology and the Aeademics. p.97

自由(Freiheit)였다. 大學은 內部 理論에 따라서 活動할 수 있는 격리된 社會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溫情的 干涉主義를 배격한 教育樣式이다. 教授는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한 獨逸人의 定義는 옳다고 본다. 大學이 國家機關이지만 그 機能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國家로부터 自由가 부여되어야 한다.<sup>12)</sup>

일찌기 大學은 紳士養成이 目標였으나 科學技術이 支配的인 時代에 들어오면서부터 技術 日進도로 변모해 버렸다. 과거 獨逸에서는 技術을 大學內로 끌어드리는 것은 “工夫의 自由(Lernfreiheit)”의 全精神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主張해 왔다.<sup>13)</sup>

技術이 그 效用性으로 봐서 平和時에는 經濟的 安定的 母體가 되고 戰爭時에는 安全保障에 貢獻하는 것은 事實이지만 科學技術의 노예가 된 人間들은 紳士의 資格에 缺乏症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물론 紳士의 概念도 過去에는 有閑階級이었으나 지금은 有閑階級이 아닌 것만은 事實이다. 大學 卒業者에게 우리는 B.A.學位를 수여한다. 여기서 A는 自由學藝(Liberal Arts)의 意味인데 이學位를 取得해서 卒業한 者 中에는 中世大學의 7個 自由學藝(文法, 修辭 論理, 算術, 幾何, 商業, 天文) 課目を 알고 졸업하는 者는 극히 드물다.

現代에 와서 大學의 機能變化와 아울러 심각한 問題는 教養教育의 缺乏이다. Newman 추기경은 교양으로서의 知識을 찬양한 나머지 實用을 爲한 知識을 쓰레기더미와 같다고까지 했다.<sup>14)</sup>

그만큼 오늘의 大學은 지나치게 實用的이고 職業的인 教育에만 치우쳐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近視眼的인 政策밖에 되지 않는다. 學問의 所產은 “書籍이 아니고 人間이다”<sup>15)</sup>라는 말처럼 全人教育 人間教育을 重要視하여 最少限 一學年 學生에게 寄宿舍 生活을 一年間 圓코하는 理由는 教養教育을 強調하는 것이라고 본다.

Daniel Bell은 말하기를 교양교육이란 人間의 精神을 人文化하고 自由化하는 教育을 뜻하고 그中에서도 널리 여러 分野에 걸친 關係를 把握하는 立場에서 教育의 폭을 넓히는 教育이라고 했다.

이것을 實現하기 위해서는 교양교육은 總合(integrated) 또는 interdisciplinary 한 學問 領域間의 關聯性을 把握시킬 수 있는 內容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 實例로 1970年 California 大學에서는 學問間研究 及 教養學部(Division of Interdisciplinary and General Studies. DIGS)를 設置한 일이 있다.

12) ibid. p. 157-158.

13) ibid. p. 71

14) Clark Kerr, The uses of the University p.40 Quoting from John Henry Cardinal Newman, The Idea of a University(New york: Longmans Green and Co., 1947) pp.129. 91.

15) ibid. p. 168. 본 論文 Ivory Towers in Tomorrow's world 는 에릭 에슈비 경이 1967년 4월 26-29일에 미쉬간 大學 150주년을 기념하는 “未來의 고등교육” 國際學會에서 강연한 원고이며 1967년 11월호 “Journal of Higher Aducaction” 38권 8호 pp. 417-427에 掲載되어 있다.

基督教 高等教育機關도 여기에서 例外일 수 없다. 基督教教育의 궁극적 目標은 Christlike-ness 인 고로 우리는 被教育者를 “참된 人間”으로 育成시키는 일이 最大의 使命이다. 그러므로 基督教 大學은 教養教育에 力點을 두어야 한다.

일찌기 美國의 public school 이 世界歷史에 貢獻한 것이 民主主義精神이었다면 美國內에서의 最大貢獻은 國家 안에서 教會의 自由를 許容한 것이다. 따라서 美國에서 宗教는 學校마다 다루어졌고 學校는 반드시 宗教歷史, 比較宗教, Bible Course 의 Sponsor 가 되었으며 宗教研究가 適當하게 學校指導 아래 두어졌다.<sup>16)</sup>

이것은 分明히 宗教가 참된 人間을 育成하는 基礎課目으로 理解된 것이 아닐까 한다. 오늘날 國內 大學에서 宗教研究와 그 분위기를 強化하는 일이 교양교육 結論을 補充하는 한 方法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오늘날 大學과 世界의 危機를 克服하기 爲해 高等教育 自體가 可能한 限 크리스찬화해야 한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에 依해 人間에게 提供된 가장 뜻깊은 일일 것이다.<sup>17)</sup>

教育目的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그 중에 한 가지만을 든다면 批判的思考(Critical thinking)의 開發을 들수 있겠다.

이 目的을 達成키 爲해서는 반드시 論理學과 歷史가 폭 넓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sup>18)</sup> 그런데 오늘날 國內大學에서는 論理學을 教養課程에서 除外해가고 있는 實情이다.

最近에 教育哲學이 파괴된 要因이 무엇인가? John p. Wynne 는 이를 세 가지로 分類하였는데 ① Educational Authoritarianism ② Educational Laissezfaire ③ Educational experimentalism 이라고 指摘하였는데 더우기 教育적 실험주의는 individual 과 environment 사이의 相互作用을 強調하는 것인데 이것이 방임주의와 아울러 primary goal 을 이탈하는 사태가 展開되고 있다. 여기에 심각한 教育적 思考를 거친 새로운 方向이 設定돼야 할 것이다.<sup>19)</sup>

우리는 實驗大學의 과정에서 學點이 감축되면서 많은 教養課目을 喪失해 버렸다. 이를 代置할 方案을 時急히 강구해야 한다. 基督教大學은 이를 補充하는 Extra-Curriculum 들을 많이 가지고있다. 이 點을 開發하여 最大限으로 活用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使命即 ‘人間完成’을 이룩할 수 있는 捷徑이라고 본다.

### 3. 基督者教授와 教育內容

大學(Universität)이란 Latin 語의 Universitas 로서 “全體(gesamtheit)”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16) James v. Panoch: Religion Goes to School p. 3-4

17) Nels F. S. Ferré: Christian Faith and Higher Education p.244.

18) Myron Lieberman: The future of public Education p.18.

19) Randolf Crump Miller: Education for Christian Living p.15. Quoting from John p. Wynne, Philosophies of Education (New York: Prentice-Hall Inc., 1947) pp. 4-11

데 基督教에서는 이 “全體”를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하나님은 個人과 社會와 國家도 包括하면서 또 超越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教會가 高等教育에 重要 役割을 擔當하게 된 理由는 聖經의 唯一神主義(Biblical monotheism)에 基礎를 두고 있으며 “내가 곧 眞理”라고 強調하신 그리스도 안에 “眞理의 統合”(Unity of truth)이 가능한 것이다.

大學에서 極히 細分化 된 “學(-logy)”도 하나로 묶는다면 요한복음 첫줄에 나오는 Logos (말씀)에 연결되고 만다. “太初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었습니다.”<sup>20)</sup> 이러한 테두리 안에서 物理學者도 生物學者도 事實은 하나님의 眞理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神學者나 예언자의 使命을 갖고 있는 것이다. 基督教大學에서는 모든 教授가 이 예언자적 使命을 감당해야만 한다.

基督教大學에서 어떤 分野는 學問이라는 이름 아래 놓고 어떤 分野는 宗教라는 이름 아래서 다루어지면서 이 둘은 分離되어야만 한다는 主張은 出發點부터가 잘못이다. 그러므로 모든 教授는 自己分野에서 基督教의 哲學을 形成시킬 수 있는 能力을 지녀야 한다.

모름지기 基督教教授는 가르치는 課目을 有効하게 適用하여 基督教의 투시도를 만들고 基督教을 基本으로 하는 승화된 思考力을 訓練하도록 해야 한다.<sup>21)</sup>

基督教大學이 그 使命을 다 할려면 믿는 教授들을 모셔야 한다. 언젠가 哲學概論을 講義하는 講師가 無神論을 너무 強調한 나머지 神을 버리게 됐다고 校牧室의 門을 두드리는 學生이 있었다.

C.S. Lewis는 말하기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적의 通信 line 을 공격하는 것이다”라고 했다.<sup>22)</sup>

우리에게 基督教에 關한 書籍은 넘칠만큼 많다 그것보다는 基督教인이 基督教의 價値觀에서 쓰여진 다른 分野의 冊이 더 必要하다. 地質學, 生物學, 政治學, 天文學에 關한 基礎書籍을 읽을 때 그 著者가 佛敎學者였다면 우리는 그 冊에서 佛敎의 暗示를 받아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지게 된다.

現代人을 唯物論者로 만드는 것은 唯物論에 對한 直接的인 宣傳書籍이 아니라 唯物論的인 가정하에서 쓰여진 다른 分野의 冊에서 同化되고 마는 法이다.

基督教大學의 모든 教授들이 教科書를 執筆하는데 이 原理를 받아 드려야 하며 大學當局은 最大限 이를 지원해야 한다.

大部分 基督教 大學의 Curriculum Committee 에 校牧이 빠져 있으며 聖書課目 學點감축단이 論亂의 對象이 될뿐 위와 같은 面에 着眼하지는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많은 大學들이 그

20) 요한복음 1:1

21) Paul M. Limbert. College teaching and Christian Value p.14

22) Robert w. Cousar Jr.: op. cit. p.8.

저 世俗的인 데에 만족하기 때문이다.<sup>23)</sup>

現代의 大學들은 大部分 사람들이 財物을 얻는 方法을 배우는 訓練院으로 만들어 버렸다. 大學이 사람들을 섬기는 法을 배우는 訓練場이었던 때가 과거에 있었음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sup>24)</sup>

. 이 世界는 自然的인 世界와 靈的인 世界가 있다. 大學校에서 工夫하는 것은 自然的인 것이다. 教授의 講義는 거의가 自然的인 것들에 關한 것이다. 事物의 自然的인 面을 工夫하는 것은 그 自體에 問題는 없지만 그것이 唯一한 目的이라면 그것이 올무가 되고 만다. 이수해야 할 課程이기에 그것이 두드러진 唯一한 것일지 모르나 주의하지 않으면 自然的인 面이 存在하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20세기 科學 技術 革命時代에 돌입하면서부터 大學은 Technical School로 변모해 가고 있다. “大學은 職業訓練所이기도 하며 一般大衆을 爲한 Service Station이 돼 버렸다”고 Flexner는 말하고 있다.<sup>25)</sup>

여기에 對해 教會關係大學은 다음의 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The principal function of the church College is to provide a sound liberal arts training, furnishing the student with a basic understanding of the arts and sciences and humanities.”<sup>26)</sup>

大學에서 工夫하는 科學은 그 自體가 主의 榮光을 나타내고 穹蒼은 손으로 지으심을 보여야 하며(시 19 : 1) 또한 科學은 聖書를 명료화하는 作業을 해야한다. 그러면 基督教은 科學에 對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첫째로 基督教 立場에서 科學의 目標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하나님에게 榮光을 돌리는 일이며, 또 하나는 땅위에 사는 人間의 福祉增進이다(막 12 : 30-31).

둘째로 基督教은 科學을 養成해야 한다. 암흑의 나라에 醫學과 通信과 交通과 産業을 그리고 마음의 光明을 가져다 주어야 한다.

세째로 基督教은 科學을 바른 자리에 놓아야 한다. 萬物은 人間에게 征服되도록 주어졌다. 그래서 化學, 物理研究의 專門家라고 불리우게 된 것이다(요 1 : 1-3, 골 1 : 16-17, 골 2 : 3).

創世紀의 創造說話는 하나님과 自然界를 갈라 놓고 삼라만상은 人間을 爲해 하나님께서 주신 食物이며(창 1 : 30) 이 땅의 모든 것에 이름을 짓고 그것을 利用하여 기계를 만들고 世界를

23) Eui Sook Cho, A Comprehensive Study on the functions and Characteristics of Educational programs of Christian Higher Education in Korea p.25. Joint Research project Soong jun, Seoul Woman's, Keimyung Christian College 1973.

24) Manford George Gutzke: The Christian and the Campus p. 15.

25) Clark Kerr. op. cit., p.44 Quoting from Abraham Flexner Universities: American English German(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30)

26) John Knox Press, op. cit., p. 84

잘 가꾸게 祝福한 것이다.<sup>27)</sup>

이것이 技術開發에 크게 貢獻한 것이다. 또한 Science와 Scienticism은 根本적으로 다르다. Science는 有用한 중이지만 Scienticism은 하나의 神格(deity)이다,

참된 科學者는 科學主義의 禮拜儀式을 實施하는 일이 거의 없다. 그러나 充實한 禮拜者는 科學의 部下(hangers-on)나 구경꾼(bystander)이다. 그것은 科學이 바로 世上萬事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確信하는 者들이 바로 科學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sup>28)</sup> 이 노예들이 結局은 自然을 파괴시켰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Technology에 對해 그 許容限界가 다음의 세 가지라고 A. N. Triton은 提示하고 있다.

첫째 하나님의 創造는 尊敬되어야 하므로 우리 世代만을 爲한 것이어서도 안되고, 둘째 自然을 自然대로 방치해서도 안된다. 사막을 옥토화하기 위해 땅을 征服하고 땅의 動物을 다스려야 한다.

세째 自然世上을 비범한 지혜와 複雜性으로 均衡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自然을 그대로 맡겨두면 좋은 것들을 항상 잃어버리기 마련이므로 自然을 動員하여 改善에 全力을 기울여야 한다.<sup>29)</sup>

基督教 高等教育機關의 教授는 크리스찬인 同時에 教育者이다. 이 두 가지 單語가 教授의 機能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크리스찬으로서 그는 生活과 音聲으로 證人이 되어야 한다. 生活로서 그는 Christlikeness의 삶을 보여주어야 하고 音聲으로서 自然에 나타난 神의 啓示를 眞理로 表現해야 한다.

反面에 그는 教育者로서 하나님의 위탁된 命을 따라서 가르쳐야 한다.

이를 Dr. Mark Fakkema는 教授의 mandate of God이라고 強調하였다. 그는 벤전 4:10—11에 나타난 各種 은사에서 Christian teaching의 4가지 要因을 말하고 있는데

- ① Ministering what has been received
- ② Speaking as oracles of God
- ③ Working with an ability which is of God
- ④ God must be glorified through Christ.<sup>30)</sup>

即 그는 minister로서 하나님의 本性和 그의 多樣한 恩惠에 對해 證據해야 하고 神託者로서 크리스찬 教授는 하나님의 代弁자(mouth piece)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即 教師는 요한복음 7:16—18에 나오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27) F. Alton Everest, Modern Science and Christian Faith. p.18—19(Eleven Essays on the Relationship of the Bible to modern Science)

28) Chad Walsh: Campus Gods on Trial. p. 43

29) A.N. Triton: Whose World. p.155.

30) H.W. Byrne, A Christian Approach to Education. p. 127 Quoting from Mark Fakkema, Christian Philosophy: Its educational Implications (Chicago, national Association of Christian Schools, 1952)



“내 敎訓은 내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스스로 말하는 者는 自己 榮光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榮光을 구하는 者는 참되니 그 속에 不義가 없느니라”

사람이 그 自身을 하나님 의 제사장으로 생각한다면 그의 일들은 거룩한 召命이 되는 것이다.<sup>31)</sup>

#### 4. 基督教大學의 特性化

오늘날의 大學은 社會 國家 發展의 中心的 存在로서 그리고 人間生活의 源泉으로서 社會奉仕의 重要的 機能을 擔當하는 傾向으로 變形되어가고 있다.<sup>32)</sup>

Harold Howe 는 말하기를

“오늘에 와서 敎育機關은 地域社會로부터 孤立되어 存在할 수 없으며 좋은 울타리는 좋은 이웃을 만들 수 없다. 그들은 地域社會의 生存에 直結된 問題를 爲해 그들의 모든 施設을 活用해야 한다.”<sup>33)</sup>

고 力說했다.

그러므로 生活向上에 對한 期待의 革命的上昇期(the revolution of rising expectations)에 놓인 이 時代에 大學이 가진 高度의 專門的인 人的資源과 文化的 施設의 活用은 強한 時代的 要請이 되고 있다.

이러한 大學의 擴張奉仕(University extension Service)가 社會福祉增進에 기여해야 한다고 Paul G. Hoffman 은 力說하고 있다.<sup>34)</sup>

바야흐로 大學은 University extension Service 또는 Extra-mural department 를 두어 地域 社會 奉仕活動을 하여 國民들에게 生涯敎育(Life-long Edacation) 또는 市民들에게 폭 넓은 敎養敎育(Liberal Adult Education) 또는 계속敎育(Continuing Education)을 實施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大學 卒業狀이 마치 여권과 같이 되어서 更新하지 않으면 10년 안에 그 効力を 喪失하게 될지도 모른다.

大學이 이렇게 변모해가는 過程에서 基督教大學은 그 特性을 어떻게 具體化시킬 수 있겠는가, 大學이 大學을 爲해 있지 않고 社會的 責任을 爲하여 있으며 이 對社會奉仕活動의 精神은 基督教에서 말하는 이웃사랑이라든가 對象의 선택 없이 價値創造를 爲한 아가페 사랑이라든가 自己를 이웃과 同一視하는 精神과 一致한다.<sup>35)</sup> 그러나 H. Richard Niebuhr 의 말을 빌

31) Paul M. Limbert, op. cit., p.11

32) 유인종 : 세계敎育의 改革動向 p. 303, 1974

33) Charles S. McCoy, op. cit. p.146. Harold Howe 는 former U.S. Commissioner of Education 으로서 그의 글 How appeals for University Action to Help Save Cities 에서 引用한 것이다.

34) 朴大善 : 大學과 國家發展 p.7, 1968

35) 李章植 : 亞細亞 基督教 大學의 發展과 當面課題들의 考察, p.47. 啓明大學 學生指導相談 제2집

리던 世俗의 文化가 基督教洗禮를 받는 것은 “Christ above culture” 범주에 屬하는 것이고 反面에 基督教 信仰이 世俗文化의 標準과 尺度에 흡수되어 버리는 것은 “Christ of culture”에 該當하는 것으로써<sup>36)</sup> 基督教大學이 地域社會奉仕를 爲한 多様な 內容을 그 本質에 있어서 基督教의 再解釋을 加하여 適用해야 할 것이다.

大學이 社會正義나 目的에 對한 中立的 態度를 버리고 傳統의 傳達과 함께 人間의 問題를 解決하는 役割을 감당할 때 人間必要(Human need)의 創造의 市場이 될 수 있고 社會變化의 代行者가 될 수 있다. 이러한 高等教育을 實存의 大學(The existential University)이라고 부를 수 있다.

적절한 名稱은 變化代行大學(Change-agent University) 或은 行動하는 大學(Action University) 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萬一에 教會關係大學이 이 새로운 高等教育 움직임에 參與하게 될 때 社會周邊의 諸要求와 關聯된 program 을 發展시켜야하고 都市危機(Urban Crisis)에 연관된 內容 안에서 學生들을 訓練시켜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identity 를 發見해내야 할 것이다.<sup>37)</sup> 卽 하나님의 統治와 人間共同體 概念에 對한 새로운 identity 를 말하는 것이다.<sup>38)</sup>

그것은 大學의 獨特性(uniqueness)이나 孤立性(isolation)이 아니고 地域社會와 그 주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關心은 基督教 信仰의 遺産에 依한 統治이어야 한다. 卽 大學의 福祉는 地域의 福祉에 깊이 包含되 있다는 確信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폭넓은 目的과 연결될 것이다.<sup>39)</sup>

## 5. 構造의 宣敎와 福音化

宣敎의 概念은 Ecumenical 運動의 제3기에 접어들면서 大轉換을 하였다. 傳統의인 教會觀에 立却한 使徒中心과 教會中心의인 機構의인 解釋으로부터 社會的인 Context 로 그 宣敎의 Focus 가 옮겨졌다.<sup>40)</sup>

大學이 University 에서 multiversity 로 變質되는 革命過程에서 Campus 宣敎가 構造的이어야 함은 multiversity 로 變化된 學園構造와 비례적인 것이다.<sup>41)</sup>

構造라는 말은 무엇인가? 이 말은全體가 갖는 一般的인 性格에 依해서 支配되어 있는 各部分의 相互關係性을 말하는 것이다.<sup>42)</sup>

36) 은준관 : 학원을 向한 기독교적 책임 기독교사상 1969. 2월호 57.p.

37) Charles S. McCoy: op. cit., p.116.

38) ibid. p.74

39) ibid. p.75

40) 김성환 : 고등교육에 있어서의 구조적 선교연구 p.75

41) 은준관 : op. cit., p.59

42) Letty M. Russell: Christian Education in mission, p.104.

相互關係性을 말할 때 우리는 “參與”라는 單語를 쓰게 된다. “參與”(Koinonia)라는 單語는 어떤 事項에 스스로의 分깃을 갖는 일(having a share in Something)이란 뜻과 어떤 行動을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일(fellowship together in the Action)이란 意味를 가지고 있다.<sup>43)</sup>

學園牧會에 있어서 構造的 宣敎란 職員, 教授, 校牧, 總長으로 연결된 일련의 參與를 意味하고 있다. 構造的 宣敎가 全人的 宣敎(from whole person to whole person)를 意味하고 있기 때문에<sup>44)</sup> 이 全人的 宣敎는 社會의 바탕 속에 침투하여 예수그리스도를 證據하는 宣敎方法이다.

그러므로 이 構造的 宣敎는 校牧만의 使命이 아니고 크리스찬 全體의 責任이다. 平信徒의 使命은 大學 안에서 創造의 小數로서 參與하는 전위대요 校牧은 그 平信徒 전위대를 組織, 訓練하는 일을 해야 한다.<sup>45)</sup>

美國 初期에 있어서 總長은 반드시 聖職者이어야만 되던 時代가 있었고 그 다음에 校牧時代에 접어들었다. 그러면 다음은 어느 時代로 돌입하게 되겠는가 그것을 校牧無用時代라고 가정해 보자.

構造的 宣敎의 理想的 model은 校牧을 必要로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가 歷史의 미행자로 오신 것처럼 職員—教授—總長이 저마다 숨어서 宣敎의 使命을 감당할 때 校牧의 機能은 이들이 代行하는 것이다. 그런 意味에서 모든 職員은 크리스찬이어야만 하고 모든 教授가 神學者와 預言者의 使命을 감당해야 한다. 케도릭계의 大學에 Chaplain 代身에 신부들을 教授로 養成하여 採用하고서 構造的 宣敎의 使命을 卓越하게 수행하고 있는 事實을 우리는 보아 왔다.

Clark Kerr 博士는 大學總長은 두 얼굴을 가진 存在라고 했지만<sup>46)</sup> 教會關係大學의 總長은 multifaceted man 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基督教大學에 있어서 信仰的인 분위기 創造에 있어서 校牧보다는 總長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總長의 信仰的인 確信이 무엇보다도 教育目的을 때때로 反省해 볼 수 있을 것이며 Spiritual excellence 를 Academic excellence 못지 않게 重要하게 取扱할 것이다.

基督教大學의 總長은 몇 겹의 人格을 지녀야 한다. 學生에게는 親舊, 教授에게는 동료, 理事들에게는 健全한 經營者, 一般大衆에게는 卓越한 연설가, 기부자에게는 설득력 있는 의고관, 신문기자에게는 대변인, 自己 分野에는 學者, 國家에 對해서는 공복,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役割은 教會의 열성적인 일원이어야만 한다.<sup>47)</sup>

校牧은 大學內의 各階層의 構成員 即 總長에서 學生에 이르기까지 간격 없는 對話를 나눌

47) Clark Kerr. op. cit., p. 71

48) 김성환: op. cit., p. 94

43) ibid., p. 128

44) 김성환: op. cit., p. 79

45) ibid., p. 114

수 있고 거기에서 構造的 宣敎의 可能한 方法을 여는 者이다. 이렇게 校牧은 大學에서의 enabler 가 되는 것이다.<sup>48)</sup>

學園宣敎에 있어서 가장 問題삼아야 할 것은 “學園의 분위기”다. 이것을 可能하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意思疎通(Channels of Communication)이 마련되어야 한다. 총장과 교수 그리고 學生 사이에 意思交換의 機會가 開放될때 아무리 multiversity 가 팽창하더라도 大學은 共同體 感情(Sense of Community)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sup>49)</sup>

이러한 構造的 宣敎를 通하여 大學의 힘의 關係構造를 宣敎領域으로 開發해야 한다. 關係의 타락은 한 共同體의 분위기를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關係의 화해는 共同體의 구원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 學園宣敎의 課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學園宣敎는 복잡하게 얽힌 細分化 構造 속에 侵透하여 거기에서 힘의 關係를 회복하고 학원의 분위기를 창조하고 참 本來的 大學이 되게 하는 參與共同體를 만들어야 하겠다. 이 거창한 作業은 어떤 特定人(例: 교목)만의 使命이 아니고 크리스찬 全體의 責任이다.<sup>50)</sup>

Campus 福音化는 그리스도의 至上命令이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 基督教 大學은 教會의 그늘에서 떠나려 하고 있다. 더 以上 信仰的인 엄한 규율의 支配를 받아서는 안되겠다고들 한다.

그러나 基督教 大學에서 무엇인가 다른 非基督教 大學에서 줄 수 없는 그 어떤 것을 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充分하다. 우리의 기독교적인 진수를 희생시키지 않고 굳게 고수할 때 大學은 祝福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教會와 關聯된 大學들은 眞正한 意味에서의 基督教 大學이 되어야 하겠다.

學生의 여론조사나 教授의 意見을 가지고 基督教 大學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심판의 날이 당도했을 때 우리의 當面한 問題를 여론조사 結果에다 依存할 것인가?

基督教 大學이 예언자적 宣敎의 役割을 擔當하는 것을 우리의 任務로 해야 하겠다. 모든 眞理는 Unity 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축될 수 있다는 事實을 明確하게 자주 教授들에게 傳해야 하겠다.

## 6. 特性化 model 研究

基督教 大學의 特性化는 철저하게 캠퍼스 福音化에 있다.

本 model 研究는 캠퍼스 福音化 전략의 하나로 聖書課目을 이수하는 下級學年 學生들을 4 個의 Team 으로 構成하여 4차례에 걸쳐 주말에 수양관으로 초청하여 計劃된 프로그램을 提供한 뒤 그 成果를 參加한 學生들에게 直接 質問紙를 通하여 물어본 것이다.

46) Charles S. McCoy: op. cit., p.41

49) ibid., p.102

50) ibid., op. cit., d.14

1. 실시기간 : 1975년 9월—10월
2. 참가대상 : 기독교개론, 구약개론 수강생 약 200여명
3. 장 소 : 헬몬수양관
4. 소요경비 : 학생 1인당 1,500원(학생부담 500원, 교목실부담 1,000원)
5. 수련회목표 :
  1. to cultivate the ability for self-expression
  2. to encourage a commitment to the Christian way of Life, and
  3. to develop more effective leadership.
6. 수련회 program

시간	행 사 내 용	8 : 40	Coffee Break
1 : 30	학교출발	9 : 00	Folk Dance
2 : 00	Sing Along Campus	9 : 30	Sing Along Campus
2 : 10	orientation	9 : 40	Stunt night
2 : 20	Bingo and Game	10 : 30	Candle service
3 : 10	Human Relation Lab	11 : 00	취 칩
4 : 00	Coffee Break	6 : 00	찬송순례
4 : 20	Quiz	7 : 00	아침식사
5 : 10	저녁식사	7 : 30	설문조사
5 : 40	Group meeting	7 : 50	환경정리
6 : 30	Call to worship	8 : 00	기념촬영
6 : 40	신앙부흥회	8 : 10	귀 가
7 : 40	영화감상		

위의 program 을 進行하기 위해서 는 매회마다 各 program 을 擔當할 조교를 미리 훈련시켜서 每回 平均 8 名の 조교가 동반되었고 信仰復興會 를 위해서 고명한 講師를 초청하였 다. 얼핏 보기에 是 너무 密찬 program 처럼 보이지만 4차례를 進行해 보면 是 큰 무리가 無었던 것 같았고, 實 제적으로 參석한 學生들의 애기로는 水련회 기간이 짧기 때문에 tight 한 program 으로 시간을 아낀 것이 좋았 다고 했다.

7. 예비조사

(가) 參석자의 종교 분포

[표 1]에서 신자의 분포가 40%에 불과하다. 본대학 전체 신자 분포 45%에 미달한 이유는 조사에 응한 학생들이 1,2학년 하급 학생들이기 때문이며 상급학년에 이룰수록 신자의 %가 높기 때문이다.

(나) 주말 수련회에 대한 태도

본 수련회가 성서과목 수강생들의 의무화 參석을 전제로 했으며 실라버스에 이미 학기초에 수련회코스를 학기말 성적 10점을 배당했기 때문에 강제성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표 2]의 ④ ⑤항을 묻지 않을 수가 없었다. 물론 이 조

<표 1>

문	항	F	%
개	신 교	57	30
친	주 교	18	9.4
불	교	8	3.1
무	종 교	107	57.7
	N	190	100

<표 2>

	문항	F	%
1	꼭 참석 하고 싶다	58	30
2	다소 흥미가 있다	83	42
3	평범하다	41	20
4	가자니 갈 수밖에 없다	10	5
5	강제성 때문에 반발의식이 생긴다	6	3
	N	198	100

<표 3>

	문항	F	%
1	동의하실 것이다	133	68
2	다소 동의를 얻기 힘들다	19	9.7
3	미리 교목실에서 신입장을 보내는 것이 좋겠다	37	18
4	의박은 거의 불가능하다	7	3.5
	N	196	99.2

<표 4>

	문항	F	%
1	기대 이상의 재미가 있었다	67	39.4
2	기대하던 만큼의 재미가 있었다	55	32.4
3	보통이었다	38	22.3
4	기대했던 것 보다 다소 재미가 없었다	8	4.7
5	아주 재미가 없었다	2	1.1
	N	170	99.9

<표 5>

	문항	F	%
1	꼭 필요한 행사라고 생각한다	113	66.4
2	없는 것 보다는 낫다	54	31.8
3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4	2.3
	N	170	100.5

Academic Course 와 연결시켜서 과연 성적 평가에 반영할 수 있을가에 대해 반신반의하면서 지난 여름 자체 교수 세미나에서 그 의도를 제안하였을 때 찬반 양론이 비등했으나 성서과목 자체가 field work 을 다양하게 포함할 수 있는 과목이기에 한번 모험을 해보기로 하고 가을 학기 초 실라버스에 처음으로 제시한 것이다.

大學生活을 통한 사회적 성장은 진리탐구에 못지 않는 비중을 갖고 있음은 학생 스스로 느끼고 있는 점인데 사실은 학생 90% 이상이 week end conference 에 한번도 참여하지 못했다는

사는 수련회 이전에 실시한 예비조사였으며 예상하던 것과는 달리 이 문항에서 큰 반발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다행이었다.

(다) 수련회를 참석하려면 부모의 동의는?

본 수련회에서는 1박을 요하므로 교목실에서 부모 동의서를 미리 준비하여 [표 3]의 ③④항의 학생들을 거의 참석하게 했다.

### 8. 결과조사

(가) 금번 수련회의 성과

[표 4]에서 수련회가 재미가 있었다고 반응을 보인 것이 72%나 된 것을 보면 수련회는 반드시 지원자에 의해서만 수행되어야 한다는 종래의 관념을 탈피할 수 있다고 본다.

그동안 여러 차례 주말 수련회를 가져보았으나 대개의 경우 지원자에 의한 동질구름이었기 때문에 그 운영은 비교적 쉬웠지만 모든 학생들과 같은 경험을 나누지 못하는 약점이 있었다.

이 점을 개선하여 신입생들의 Orientation Course로서의 개발 가능성을 이 조사에서 찾아 보고자 하는 것이다.

(나) 수련회의 필요성 유무

처음에 이 수련회를 계획했을 때 성서과목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것은 그만큼 이를 위한 대학 분위가 형성되지 못한 것을 단적으로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강제성을 띤 획일적 program 에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호기심을 갖고 참석했으며 경험을 해 본 뒤에는 70% 가량이 꼭 필요한 행사라고 좋은 반응을 보여준 것이다.

(다) 수련회를 통한 신앙적 결단

신앙부흥회는 본 수련회의 가히 노른자위격이었다. 교목의 설교와 강의는 항상 들어왔기 때문에 일부러 수련회의 설교를 피하고 외부에서 강사를 초빙하였다. 그리고 본 수련회의 program 은 신앙일변도의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한 것도 의도적이었고 신앙부흥회에다 최대의 역점을 둔 것도 의도적이었다.

<표 6>

	문	항	F	%
1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였다		53	33.1
2	기독교에 대해 더 관심이 커졌다		82	51.2
3	신, 불신간에 전과 다름 없다		24	15.0
4	기독교에 대해 더 반발심이 생겼다		1	0.6
	N		160	99.9

본 수련회에서는 매번 강사가 신앙적 결단을 촉구하였고 4차례 수련회에 걸쳐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손들고 일어선 자가 도합 53명이나 되었다.

해마다 교목실에서 거행하는 최대의 행사는 채플에서 전교생을 모아두고 실시하는 거교적인 신앙부흥회인데 그 규모에 비해서 그 성과는 금번의 이 주말 수련회 보다 훨씬 뒤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이 통계 결과로 입증되었다.

수련회에 참석했던 학생들이 나중에 스스로 교목실을 찾아와서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했으니 이제는 출석할 교회를 선정해 달라고 요청할 때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었다.

이 결심자 53명에 대한 follow up program 을 수련회가 끝나는 즉시 발표하였다.

初信者 육성을 위한 대학생 선교회의 LTC. Course 를 마련하여 이 결심자들로 하여금 참석토록 하여 추수지도를 했다.

물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지만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하여 물을 주고 가꾸어야 할 것이다.

(라) 가장 좋았던 프로그램

[표 7]에 나타난 결과로는 Folk Dance 와 Stunt Night 이 가장 인기 있었던 것 같다.

종교적인 프로그램은 신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비교적 좋아하는 것 같았으나 불신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다소 비종교적인 program 에 호기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통계를 보더라도 대학생들의 모임은 그것이 어떤 성질의 모임이든 간에 그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여기에서 비종교적인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 늘러가는 듯한 인상을 풍긴다는 주위의 원고도

〈표 7〉

	문	항	F	%
1	Folk—Dance		114	22.7
2	Stunt Night		68	13.5
3	Candle Service		62	12.3
4	신앙 부흥회		60	11.9
5	찬송순례		57	11.3
6	Quiz		46	9.1
7	Human relation Lab.		36	7.1
8	Bingo and Game		31	6.2
9	Sing along Campus		14	2.8
10	영화감상		14	2.8
		N	502	99.7

있었지만 필자의 의도는 다른곳에 있었던 것이다.

(마) 좋지 않았던 프로그램

[표 8]에서 특이한 현상은 영화감상이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물론 영화 내용과 영사기 문제도 다소 있었지만 비활동성 프로그램은 젊은이에게 적합하지 못하고 자기가 직접 참여하는 program 일수록 그 성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간관계훈련(Human Relation Lab.)은 처음 시도한 것이기 때문에 회수를 거듭할수록 좋은 반응을 보여준 것으로 통계는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 program은 개발하기에 따라 그 성과가 크리라고 보며 참가자의 마음가짐과 Leader의 숙련도가 크게 좌우되는 program으로 보여졌다.

짧은 시간에 펼쳐지는 10여가지가 넘는 program을 위해 8명의 조교가 자기 맡은 분야에 대해 최선을 다하여 준비한 결과 좋았다고 생각되는 종목에 체크한 빈도는 502로 나타난 반면에 좋지 않았다는 종목에 체크한

〈표 8〉

	문	항	F	%
1	영화감상		62	23.6
2	Human relation Lab.		48	18.2
3	Bingo and Game		29	11.0
4	Quiz		27	10.3
5	Stunt Night		21	8.0
6	신앙부흥회		19	7.2
7	Candle service		16	6.1
8	Sing along Campus		16	6.1
9	찬송순례		15	5.7
10	folk Dance		10	3.8
		N	263	100

빈도는 263으로 거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다.

## 9. 제 안

이 수련회를 통해서 얻어진 위와 같은 효과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이 다음 단계를 구상해 보았다.

### 1. Campus 福音化의 정규 program

종래의 체플제도와 성서과목 이수에만 의존하던 학원선교에다 week-end Conference를 플러스하여 이를 제도화하여 정규 program으로 채택하고 그에 해당하는 정책적인 배려를 아끼지 않아야 하겠다는 점이다.

### 2. 신입생 Orientation Course

대학을 알고 자기를 알고 국가를 알게하는 Orientation Course는 아직까지 고정된 pattern



이 없고 매번 실험적이었다. 70% 이상이 불신자인 그대로 입학한 신입생을 단 시일내에 기독교대학 분위기에 적응하게 하는 한 방법으로서 이 program 을 제시하고 싶다.

이를 위해서는 물론 program 자체도 Orientation Course 를 감안하여 재조정 개발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이를 위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

### 3. 신앙수련비의 책정문제

금번 이 수련회는 다행히 미국 어느 교회에서 보내온 헌금이 다소 있어서 학생 부담을 최소한으로 하여 수행할 수 있었으나 이 program 을 계속한다고 할 경우에 그 막대한 재정을 어디에서 보충할 것인가. 교목실 예산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고로 여기에 제안하고자 하는 바는 신입생의 경우 1학년 1학기에 “신앙수련비 (가칭)”를 1~2천원 정도로 책정하여 이를 일반 실험실습비 내지는 자율적경비에 포함시키는 것이 어떨까 한다. 입학후 1~2년동안 의무적으로 기숙사 생활을 하게 하는 국내 대학도 있을 뿐더러 이는 세계적으로 그 효과를 인정하는 경향인데 week-end 에 이틀간 공동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기독교대학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며 이것이 기독교대학 특성화를 지향한 하나의 pilot program 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 7. 結 論

社會의 急激한 變化에 따라 大學은 社會가 要求하는 方向대로 끌려가는 듯한 인상을 던져 주고 있다.

大學教授가 워싱턴정부의 政治顧問도 되고 産業界의 顧問도 되고 또 契約을 通해서 經濟的 支援를 받기를 願할 때 市場이나 政治討論會에서 어떻게 超然히 孤獨을 維持할 수 있을까?

學事問題가 市議會에서 處理될 때 어떻게 學問의 自由를 確保할 수 있을까?

革新을 爲한 教育(Education for innovation)은 自體의 教育革新(innovation in Education)이 前提되어야 한다고 Max F. Millikan 은 主張하면서<sup>51)</sup> 教育自體의 社會的 適應을 強調하고 있으며 Horn 은 말하기를 “과거 상아탑에 對한 동경은 未來를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고 지적하였다.<sup>52)</sup>

그러나 大學(Academic institutions)에는 自由로운 탐구(free inquiry)와 自由로운 表現(free expression)이 缺與해서는 안된다.<sup>53)</sup> 뿐만 아니라 Campus 는 상아탑이 될 수 없다고 더러는 얘기하나 Campus 는 아직도 상아탑이 남아 있어야 한다.

自己 Style 대로 研究할 自由가 있어야 하고 孤獨과 超然之境의 機會를 가져야 社會에 對한

51) 박태선 : 대학과 국가발전 p.12

52) Boyd A. Martin, Responsibilities of Colleges and Universities p.74

53) 국립도서관 입법조사국, 주요제국의 고등교육개혁안 p.3

責任을 다할 수 있다.

그러므로 孤獨의 實踐을 처음 始作한 者가 훌륭한 學者인 것이다.

即 찰나적 問題로부터 學者를 절연시켜 長期間에 걸쳐 諸問題에 專念할 수 있어야 한다. 未來社會는 이 長期的인 孤獨에 專念한 學者들에게 依存해야 할 것이다.<sup>54)</sup>

그러므로 大學은 內部理論에 따라 各大學 特有的 傳統을 特性化하여 地域社會에 貢獻할 要素를 發見해야 할 것이다.

基督教大學의 特性化는 무엇인가?

他大學에서 찾아볼 수 없는 信仰的 분위기를 創造하는 일이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Academic excellence도 寄宿舍事故도 就業指導도 自然히 解決되고 말 것이다.

基督教의 信仰精神이 Unwritten Curriculum(不文教課程)<sup>55)</sup>으로 大學教育의 全活動에서 效果를 내는 것이어야 한다고 Seely 博士는 強調하였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 더 構造的 宣敎戰略이 必要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만한 것은 Cousar 博士는 The presbyterian Journal에서 強調하기를 “우리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의 눈 앞에서 成功하고 일을 맡겼는가 가령 우리가 發展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principle을 지키며 가라앉는게 낫다”<sup>56)</sup>고 하면서 基督教大學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 머물러 있는 것을 신랄하게 비난하였다.

筆者는 在學生들에게 質問紙를 通하여 해마다 꼭 같은 質問을 해오고 있는데 大學時節을 通하여 自身의 人格形成의 最大 要因을 提示한 14個 項目에서 선택하게 했든 바 査플—교수—도서관의 順位는 해마다 變動없이 最優位를 占하고 있다. 他大學에서 가질래야 가질 수 없는 우리만의 特權을 弱화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다.

本 研究를 通하여 基督教大學의 特性을 한층 더 強化하는 試圖를 해 봤다.

모든 教授와 職員들과 理事會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principle을 固守하며 모두가 宣敎者的 使命을 가지고 임할 때 學園을 通하여 하나님께서는 榮光을 받으실 것이며 아울러 우리들의 다른 지역적인 問題도 다 解決될 수 있으리라고 確信하는 바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義를 求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마 6 : 33).”

### Bibliography

1. Charles S. McCoy: The Responsible Campus. Division of higher Education, Board of Education, The United Methodist Church Nashville, Tenn. 1972.

54) Sir Eric Ashby, op. cit., p. 165

55) 이장식 : op. cit., p. 41

56) Robert W. Cousar Jr. op. cit., p. 18

2. John Knox Press: Church and Campus. John Knox Press, Richmond, Virginia, 1956
3. Randolph Crump Miller: Education for Christian Living. Ea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Inc. 1959
4. Nels F. S. Ferré: Christian Faith and Higher Education. Harper and Brothers Publishers. New York 1954
5. Chad Walsh: Campus Gods on Trial.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62
6. James V. Panoch, David L. Barr: Religion Goes to School. Harper and row publishers, New York, Evanston and London 1968
7. H. W. Bryne: A christian Approach to Education. Zondervan Publishing House, Grand Rapids, Michigan 1971
8. Paul M. Limbert: College teaching and Christian Values. Association press, New York, 1951
9. The American Scientific Affiliation: Modern Science and Christian Faith. Eleven Essays on the Relationship of the Bible to modern Science, Van Kampen press, 1948
10. Boyd A. Martin: Responsibilities of Colleges and Universities. Oregon State University press, 1966
11. A. N. Triton: Whose World?. Inter-varsity press 1970.
12. Manford George Gutzke: The Christian and the Campus
13. Eui Sook Cho: A comprehensive Study on the Functions and Characteristics of Educational Programs of Christian Higher Education in Korea. Joint Research project Soong Jun University, Seoul Woman's College and Keimyung Christian College, 1973
14. Hans Hofmann: Making the Ministry Relevant. Charles Scribner's Sons New York, 1960
15. Letty M. Russel: Christian Education in Mission. tr. by Woong-Sup Chung, C.L.S. Korea, 1972
16. Sir Eric Ashby: Technology and the Academics. tr. by Chul Joo Lee. Yon Sei University press, 1971
17. Paul Woodring: The Higher Learning in America. tr. by Tamgudang Publishing Co. Korea 1972
18. Myron Lieberman: The Future of public Educati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0
19. Robert W. Cousar Jr.: Christian Higher Education in Crisis. The Presbyterian Journal Sept. 29, 1971.
20. 유인종 : 세계 교육의 개혁동향. 익문사 1974
21. 박태선 : 대학과 국가발전. 교육출판사, 1968.
22.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개혁안, 1973
23. 국회도서관입법조사국 : 主要諸國의 高等教育改革案, 1973
24. 李章植 : 亞細亞基督教大學의 發展과 當面課題들의 考察. 啓明大學 學生指導研究所 제2집
25. 金聖煥 : 高等教育에 있어서의 構造的 宣敎研究, 1971.
26. Clark Kerr: The Uses of the University. tr. by Chul Joo Lee, 을유문화사 1971
27. 기독교사상 : 1969, 2
28. W. R. Niblett: Christian Education in a Secular Society. tr. by Byongil Chang, 기독교교육협회 1970

# A Study on Specialization in Christian Higher Education

Sol, Sam-yong

## Summary

The Purpose of this study lies in a concern for evangelization of the campus. Campus evangelization is the most effective way for the Christian college to realize its purpose. I will first discuss the adaptation of the college in a rapidly changing society, and then the matter of the realization of the Christian college's purpose. Specifically, this involves an examination of the methodology for conducting God's mission on campus, and finally a presentation of the weekend conference model.

### **1. A Reconsideration of the Educational Objective of the Christian College.**

Development of the "Christian Spirit" has become the fundamental purpose in the church-related school. However, this is a very abstract concept and in such institutions there is often a failure to map out specific patterns for behaviour. The net result is that there are virtually no differences between the Christian and the non-Christian college. Most Christian professors insist that there really should be no difference. Yet if this is true, why do we continue to operate such institutions? When all is said and done, our fundamental purpose for existence as a Christian college is to completely Christianize.

### **2. The Christian Professor and Teaching Methods.**

The professors in a Christian college must be good Christians, with some knowledge of theology and a sense of prophetic mission.

It is often the case that academic matters are so clearly separated from religious affairs that the twain never meet. This points up the need for all professors to have the ability to formulate Christian philosophy as it relates to their field. Members of the faculty must also show a concern for publishing textbooks written from a Christian perspective.

Such materials will greatly facilitate the teaching of Christian values to students. The school administration must support these activities in every possible way.

### **3. Transformation and Specialization of the College.**

Amidst the rapid changes of our day, transformation of the college follows patterns dictated by society. So there is still the need for the ivory tower, with its isolation and freedom.

Professors must have freedom for research in their special fields. Such persons, enjoying separation from social confusion, may prove to be excellent scholars and responsible persons in the community.

However, in the Christian college, scholars-guided by the inner theory-will make their contribution to society by developing the unique features of the Christian tradition (specialization). We are speaking here of specialization on the Christian campus.

This means creating a spiritual atmosphere.

If this is accomplished we won't have such problems as those associated with academic excellence, dormitory control, etc.

#### **4. The Structural Ministry and Campus Evangelization.**

In early America the college president was first of all a churchman, and then a chaplain. In the next period the structural ministry was developed.

If the president, the faculty, and all staff members assume prophetic responsibility, campus evangelization will take place.

The role of the president is very important in creating the proper spiritual atmosphere. The president of a Christian college must be a man of many gifts.

He must be a good Christian as well as an able administrator. And what of the role of the chaplain? He is an important person, functioning as a *link* and as an *enabler* in the structural ministry.

#### **5. Model for Specialization on the Campus.**

Under the sponsorship of the Chaplain's office and the student committee on religious affairs, a series of weekend conferences for first and second year students was held at the Hermon Retreat Center near the campus.

Beginning on the last weekend of September, 1975, four such retreats were held. Each group consisted of approximately sixty students.

The purpose of the conferences was three-fold:

- (1) to cultivate the ability for self-expression;
- (2) to encourage a commitment to the Christian way of life; and
- (3) to develop more effective leadership.

The program included the showing of Christian films, special lectures, small group discussions, quizzes and games, group singing and a stunt night. The majority of those who attended were non-Christian but each weekend at least ten students indicated a decision to commit their lives to Christ. As a result of these retreats the percentage of Christians increased from 30% to 58%.

In view of the effectiveness of these conferences the following proposals are made:

- (1) a regular program for campus evangelism.
- (2) an orientation course for freshmen.
- (3) financial support for the conferences.

### **6. Conclusion**

The Christian college has a fundamental responsibility for conducting God's mission on the campus. If the president, the board of trustees, the faculty and the staff all have a sense of mission in Christ, our basic problems will be solved and all that we do will redound to the glory of God.

“But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and all these things will be added unto you.” (Matthew 6:33)